#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II): 단어

박재현 · 김은성 · 김호정*

< 次 例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의사소통의 시각에서 국어 문법 교육을 재규정한다면, 국어 문법 교육이란 교사와 학습자가 국어 문법에 대해 모종의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교육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의 특수성은 여러 면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표면화되는 표지는 문법 용어이다. 문법 용어는 어휘적 차원에서 볼 때 전문어에 속하는, 문법적 논리 체계에 속해 있는 복잡한 개념들을 담아내는 특수 어휘이다.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 없이 국어 문법이 담아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며, 문법 용어에 대한 숙달 없이 국어 문법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불가능하다. 문법 용어는 문법에 대한 의사소통 행위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이런 점은 교육의 맥락에서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교사와 학

* 박재현(상명대학교), 김은성(이화여자대학교), 김호정(한국학중앙연구원)

습자가 일정한 수의 문법 용어를 공유하고 있어야 국어 문법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문법 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곧 문법 교수·학습에서 의도하는 국어의 문법적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적 맥락에서 문법 용어는 매우 정교하게 접근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견지에서 교육적 맥락에서 소통되는 문법 용어를 '문법 교육 용어'로 새롭게 명명하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획되었다. 앞서 논의한 문법 용어가 갖는 근본적인 특성은 문법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문법 교육 용어가 존재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고에는 일단, 통일학교문법에 준한 문법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4차 교육과정부터 최근의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정 문법 교과서의 교육 문법 용어를 교육적 목적 아래 계량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파악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음운 층위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후속으로 단어 층위에서 문법 교육 용어를 계량언어학적 방법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Ⅱ.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4차에서 제7차까지 국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단어' 단원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이다.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말을 계량한 것이 아니라, '단어' 단원에서 문법 용어만

을 추출하여 이를 계량·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2. 연구 절차

### 1) 말뭉치 제작과 자료 가공

이 연구에는 용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계량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우선 해당 문법 교과서의 '단어' 단원을 워드프로세서에 그대로 입력하여 원시 말뭉치를 만들었다. 그 다음은 언어 빈도 분석 프로그램인 'SynKDP 1.5 (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 1.5, 일명 깜짝새)'를 이용하여'단어'단원에 등장하는 전체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 추출된 전체 용어 항목에서'단어'부분과 무관한 일반 용어들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을 문법 교육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깜짝새 프로그램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어절 단위 분석을 하는 특성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할 용어들을 가공 말뭉치에서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모두 붙여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실제 교과서에서는 '실질 형태소, 대등적 연결 어미, 청유형 어미 등'을 모두 띄어서 기술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단일 용어로 처리하기 위해 '실질형태소, 대등적연결어미, 청유형어미 등'으로 모두 붙여서 처리하였다. 더불어 문법 교육 용어에 덧붙은 조사 등도 모두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 2) 용어 계량 및 빈도 분석

가공된 말뭉치가 완성된 후 역시 SynKDP 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단원의 문법 교육 용어를 계량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관련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교과서를 통합한 말뭉치에서 고빈도어를 추출하고 순위를 매겼다. 둘째, 개별 용어의 출현 빈도를 전체 용어의 출현 빈도와 비교하여 출현 비율을 계산하였다. 셋째, 각 차수별 빈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를 차수별로 구분하여 문법 용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역대 문법 교과서 단어 관련 용어의 출현 양상

제4차에서 제7차까지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계량의 대상으로 삼은 문법 용어는 모두 174개였다. 174개 문법 용어의 전체 누적 개수는 3,543개였고, 이중 제4차에 1,137개, 제5차에 1,154개, 제6차에 508개, 제7차에 735개가 출현하였다. 제5차 교과서에 문법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제6차 교과서에는 그 절반 정도인 508개의 문법 용어가 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제4차와 제5차 교과서 '단어' 단원의 내용 분량뿐 아니라 문법 용어의 개수도 제6차와 제7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계량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단어' 단원 고빈도어 분석(20회 이상 출현)

| 번호 | 용어 | 4차 | 5차 | 6차 | 7차 | 전체 빈도 | 전체 비율 | 전체 순위 |
|---|---|---|---|---|---|---|---|---|
| 1 | 단어 | 66 | 72 | 43 | 88 | 269 | 7.61% | 1 |
| 2 | 문장 | 67 | 67 | 28 | 33 | 195 | 5.52% | 2 |
| 3 | 명사 | 63 | 63 | 18 | 33 | 177 | 5.01% | 3 |
| 4 | 동사 | 48 | 50 | 15 | 14 | 127 | 3.59% | 4 |
| 5 | 조사 | 38 | 38 | 20 | 20 | 116 | 3.28% | 5 |

| | | | | | | | | |
|---|---|---|---|---|---|---|---|---|
| 6 | 접사 | 48 | 52 | 5 | 5 | 110 | 3.11% | 6 |
| 7 | 어미 | 37 | 36 | 11 | 16 | 100 | 2.83% | 7 |
| 8 | 의미 | 35 | 35 | 9 | 21 | 100 | 2.83% | 7 |
| 9 | 형용사 | 37 | 38 | 10 | 14 | 99 | 2.80% | 9 |
| 10 | 어근 | 31 | 31 | 10 | 26 | 98 | 2.77% | 10 |
| 11 | 부사 | 27 | 29 | 8 | 14 | 78 | 2.21% | 11 |
| 12 | 용언 | 18 | 18 | 19 | 22 | 77 | 2.18% | 12 |
| 13 | 어간 | 24 | 25 | 14 | 9 | 72 | 2.04% | 13 |
| 14 | 체언 | 20 | 19 | 14 | 16 | 69 | 1.95% | 14 |
| 15 | 활용 | 24 | 24 | 10 | 9 | 67 | 1.90% | 15 |
| 16 | 품사 | 17 | 17 | 6 | 25 | 65 | 1.84% | 16 |
| 17 | 관형사 | 23 | 23 | 4 | 6 | 56 | 1.58% | 17 |
| 18 | 형태소 | 11 | 9 | 12 | 21 | 53 | 1.50% | 18 |
| 19 | 대명사 | 15 | 15 | 11 | 10 | 51 | 1.44% | 19 |
| 20 | 서술어 | 20 | 20 | 4 | 2 | 46 | 1.30% | 20 |
| 21 | 합성어 | 13 | 12 | 8 | 13 | 46 | 1.30% | 20 |
| 22 | 주어 | 14 | 14 | 6 | 10 | 44 | 1.25% | 22 |
| 23 | 수사 | 11 | 11 | 11 | 10 | 43 | 1.22% | 23 |
| 24 | 형태 | 10 | 13 | 8 | 8 | 39 | 1.10% | 24 |
| 25 | 어절 | 15 | 15 | 6 | 2 | 38 | 1.08% | 25 |
| 26 | 어말어미 | 13 | 13 | 4 | 7 | 37 | 1.05% | 26 |
| 27 | 접미사 | 12 | 12 | 1 | 11 | 36 | 1.02% | 27 |
| 28 | 접두사 | 11 | 11 | 1 | 10 | 33 | 0.93% | 28 |
| 29 | 의존명사 | 14 | 14 | 1 | 3 | 32 | 0.91% | 29 |
| 30 | 의존형태소 | 13 | 13 | 1 | 4 | 31 | 0.88% | 30 |
| 31 | 감탄사 | 10 | 10 | 4 | 6 | 30 | 0.85% | 31 |
| 32 | 불규칙용언 | 10 | 9 | 8 | 2 | 29 | 0.82% | 32 |
| 33 | 한자어 | 13 | 13 | 1 | 1 | 28 | 0.79% | 33 |
| 34 | 모음 | 12 | 11 | 4 | | 27 | 0.76% | 34 |
| 35 | 실질형태소 | 10 | 13 | 1 | 2 | 26 | 0.74% | 35 |
| 36 | 목적어 | 7 | 8 | 6 | 4 | 25 | 0.71% | 36 |

| | | | | | | | | |
|---|---|---|---|---|---|---|---|---|
| 37 | 선어말어미 | 8 | 8 | 2 | 7 | 25 | 0.71% | 36 |
| 38 | 파생 | 10 | 10 | 1 | 4 | 25 | 0.71% | 36 |
| 39 | 격조사 | 7 | 7 | 5 | 5 | 24 | 0.68% | 39 |
| 40 | 자립형태소 | 10 | 10 | 1 | 3 | 24 | 0.68% | 39 |
| 41 | 보조사 | 5 | 5 | 4 | 9 | 23 | 0.65% | 41 |
| 42 | 파생어 | 3 | 3 | 8 | 9 | 23 | 0.65% | 41 |
| 43 | 형성법 | 11 | 10 | | 2 | 23 | 0.65% | 41 |
| 44 | 받침 | 11 | 11 | | | 22 | 0.62% | 44 |
| 45 | 보조용언 | 6 | 6 | 4 | 5 | 21 | 0.59% | 45 |
| 46 | 서술격조사 | 8 | 8 | 1 | 4 | 21 | 0.59% | 45 |
| 47 | 보통명사 | 5 | 5 | 1 | 9 | 20 | 0.57% | 47 |

문법 용어 계량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단어'로 269회나 등장하였다. 그 다음은 '문장'으로 195회 등장하였다. 빈도 계량 결과를 보면 '단어' 단원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 용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 예를 들면 형태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형태소'가 53회(18위) 등장하였고, 관련 용어인 의존 형태소(31회, 30위), 실질 형태소(26회, 35위), 자립 형태소(24회, 39위), 형식 형태소(15회, 54위)가 그 뒤를 이었다.

둘째, 단어 단원 기술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품사'에 대한 문법 용어도 출현 빈도가 높았다. '명사'가 177회(3위), '동사'가 127회(4위), '조사'가 116회(5위)로 '단어'와 '문장' 다음으로 3, 4, 5위를 차지하였으며, '형용사'가 99회(9위), '부사'가 78회(11위), '관형사'가 56회(17위), '대명사'가 51회(19위), '수사'가 43회(23위), '감탄사'가 30회(31위)나 출현하여, 품사 관련 용어가 단어 단원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단어 단원임에도 문장 성분과 관련되는 용어가 다수 출현하였다.

문장 성분 중에는 '서술어'가 46회(20위), '주어'가 44회(22위), '목적어'가 25회(36위)로 모두 25회 이상이나 등장하였다. 그 다음은 '부사어'가 12회(63위), '관형어'가 8회(75위), '보어'가 6회(89위), '독립어'가 2회(137위) 등장하였다. 문장의 성분은 '단어' 다음에 나올 '문장'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만, '동사, 형용사는 단독으로도 서술어가 될 수 있으나, 서술격 조사는 체언에 붙어야만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체언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등으로 기능한다.' 등과 같이 품사를 설명하거나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이므로 중학교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성분의 상당수가 '단어' 단원의 고빈도어에 해당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 2. 각 차수별 단어 관련 용어 빈도 분석 결과

### 1) 4차 교과서의 단어 관련 용어 빈도 분석

전체 174개의 문법 용어 중 4차 교과서에는 130개가 등장하였다. 많이 나온 문법 용어는 '문장(67회)', '단어(66회)', '명사(63회)' 순이었다. 4차에만 나온 용어는 '된소리' 하나였고, 전체 174개 중 4차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용어는 44개였다. 4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출현한 문법 용어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4차 고빈도어 분석

| 4차 순위 | 용어 | 4차 빈도 | 전체 빈도 | 전체 순위 |
|---|---|---|---|---|
| 1 | 문장 | 67 | 195 | 2 |
| 2 | 단어 | 66 | 269 | 1 |
| 3 | 명사 | 63 | 177 | 3 |
| 4 | 동사 | 48 | 127 | 4 |
| 4 | 접사 | 48 | 110 | 6 |
| 6 | 조사 | 38 | 116 | 5 |
| 7 | 어미 | 37 | 100 | 7 |
| 7 | 형용사 | 37 | 99 | 9 |
| 9 | 의미 | 35 | 100 | 7 |
| 10 | 어근 | 31 | 98 | 10 |
| 11 | 부사 | 27 | 78 | 11 |
| 12 | 어간 | 24 | 72 | 13 |
| 12 | 활용 | 24 | 67 | 15 |
| 14 | 관형사 | 23 | 56 | 17 |
| 15 | 체언 | 20 | 69 | 14 |
| 15 | 서술어 | 20 | 46 | 20 |
| 17 | 용언 | 18 | 77 | 12 |
| 18 | 품사 | 17 | 65 | 16 |
| 19 | 대명사 | 15 | 51 | 19 |
| 19 | 어절 | 15 | 38 | 25 |
| 21 | 주어 | 14 | 44 | 22 |
| 21 | 의존명사 | 14 | 32 | 29 |
| 23 | 합성어 | 13 | 46 | 20 |
| 23 | 어말어미 | 13 | 37 | 26 |
| 23 | 의존형태소 | 13 | 31 | 30 |
| 23 | 한자어 | 13 | 28 | 33 |
| 27 | 접미사 | 12 | 36 | 27 |
| 27 | 모음 | 12 | 27 | 34 |
| 29 | 형태소 | 11 | 53 | 18 |

| | | | | |
|---|---|---|---|---|
| 29 | 수사 | 11 | 43 | 23 |
| 29 | 접두사 | 11 | 33 | 28 |
| 29 | 형성법 | 11 | 23 | 41 |
| 29 | 받침 | 11 | 22 | 44 |
| 34 | 형태 | 10 | 39 | 24 |
| 34 | 감탄사 | 10 | 30 | 31 |
| 34 | 불규칙용언 | 10 | 29 | 32 |
| 34 | 실질형태소 | 10 | 26 | 35 |
| 34 | 파생 | 10 | 25 | 36 |
| 34 | 자립형태소 | 10 | 24 | 39 |
| 40 | 선어말어미 | 8 | 25 | 36 |
| 40 | 서술격조사 | 8 | 21 | 45 |
| 40 | 합성 | 8 | 19 | 48 |
| 43 | 목적어 | 7 | 25 | 36 |
| 43 | 격조사 | 7 | 24 | 39 |
| 43 | 의태부사 | 7 | 16 | 51 |
| 46 | 보조용언 | 6 | 21 | 45 |
| 46 | 구 | 6 | 16 | 51 |
| 46 | 형식형태소 | 6 | 15 | 54 |
| 46 | 문법적관계 | 6 | 14 | 55 |
| 46 | 고유어 | 6 | 13 | 57 |
| 46 | 합성법 | 6 | 12 | 63 |
| 52 | 보조사 | 5 | 23 | 41 |
| 52 | 보통명사 | 5 | 20 | 47 |
| 52 | 문법 | 5 | 19 | 48 |
| 52 | 고유명사 | 5 | 17 | 50 |
| 52 | 자립명사 | 5 | 13 | 57 |
| 52 | 부사어 | 5 | 12 | 63 |
| 52 | 의성부사 | 5 | 12 | 63 |
| 52 | 불완전동사 | 5 | 11 | 66 |

2) 5차 교과서의 단어 관련 용어 빈도 분석

전체 174개의 문법 용어 중 5차 교과서에는 131개가 등장하였다. 많이 나온 문법 용어는 '단어(72회)', '문장(67회)', '명사(63회)' 순이었다. 5차에만 나온 용어는 '된소리되기' 하나였고, 전체 174개 중 5차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용어는 43개였다. 5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출현한 문법 용어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5차 고빈도어 분석

| 5차 순위 | 용어 | 5차 빈도 | 전체 빈도 | 전체 순위 |
|---|---|---|---|---|
| 1 | 단어 | 72 | 269 | 1 |
| 2 | 문장 | 67 | 195 | 2 |
| 3 | 명사 | 63 | 177 | 3 |
| 4 | 접사 | 52 | 110 | 6 |
| 5 | 동사 | 50 | 127 | 4 |
| 6 | 조사 | 38 | 116 | 5 |
| 6 | 형용사 | 38 | 99 | 9 |
| 8 | 어미 | 36 | 100 | 7 |
| 9 | 의미 | 35 | 100 | 7 |
| 10 | 어근 | 31 | 98 | 10 |
| 11 | 부사 | 29 | 78 | 11 |
| 12 | 어간 | 25 | 72 | 13 |
| 13 | 활용 | 24 | 67 | 15 |
| 14 | 관형사 | 23 | 56 | 17 |
| 15 | 서술어 | 20 | 46 | 20 |
| 16 | 체언 | 19 | 69 | 14 |
| 17 | 용언 | 18 | 77 | 12 |
| 18 | 품사 | 17 | 65 | 16 |
| 19 | 대명사 | 15 | 51 | 19 |

| | | | | |
|---|---|---|---|---|
| 19 | 어절 | 15 | 38 | 25 |
| 21 | 주어 | 14 | 44 | 22 |
| 21 | 의존명사 | 14 | 32 | 29 |
| 23 | 형태 | 13 | 39 | 24 |
| 23 | 어말어미 | 13 | 37 | 26 |
| 23 | 의존형태소 | 13 | 31 | 30 |
| 23 | 한자어 | 13 | 28 | 33 |
| 23 | 실질형태소 | 13 | 26 | 35 |
| 28 | 합성어 | 12 | 46 | 20 |
| 28 | 접미사 | 12 | 36 | 27 |
| 30 | 수사 | 11 | 43 | 23 |
| 30 | 접두사 | 11 | 33 | 28 |
| 30 | 모음 | 11 | 27 | 34 |
| 30 | 받침 | 11 | 22 | 44 |
| 34 | 감탄사 | 10 | 30 | 31 |
| 34 | 파생 | 10 | 25 | 36 |
| 34 | 자립형태소 | 10 | 24 | 39 |
| 34 | 형성법 | 10 | 23 | 41 |
| 38 | 형태소 | 9 | 53 | 18 |
| 38 | 불규칙용언 | 9 | 29 | 32 |
| 40 | 목적어 | 8 | 25 | 36 |
| 40 | 선어말어미 | 8 | 25 | 36 |
| 40 | 서술격조사 | 8 | 21 | 45 |
| 40 | 합성 | 8 | 19 | 48 |
| 44 | 격조사 | 7 | 24 | 39 |
| 45 | 보조용언 | 6 | 21 | 45 |
| 45 | 구 | 6 | 16 | 51 |
| 45 | 의태부사 | 6 | 16 | 51 |
| 45 | 문법적관계 | 6 | 14 | 55 |
| 45 | 고유어 | 6 | 13 | 57 |
| 45 | 합성법 | 6 | 12 | 63 |

| | | | | |
|---|---|---|---|---|
| 51 | 보조사 | 5 | 23 | 41 |
| 51 | 보통명사 | 5 | 20 | 47 |
| 51 | 문법 | 5 | 19 | 48 |
| 51 | 고유명사 | 5 | 17 | 50 |
| 51 | 형식형태소 | 5 | 15 | 54 |
| 51 | 자립명사 | 5 | 13 | 57 |
| 51 | 불완전동사 | 5 | 11 | 66 |
| 51 | 원형 | 5 | 9 | 71 |

### 3) 6차 교과서의 단어 관련 용어 빈도 분석

전체 174개의 문법 용어 중 6차 교과서에는 137개가 등장하였다. 4차와 5차에 비해 문법 용어의 분량은 절반 정도이지만 출현 용어의 가짓수는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나온 문법 용어는 '단어(43회)', '문장(28회)', '조사(20회)' 순이었다. '어휘,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합성 동사, 합성 명사, 음운 변동, 음운 변동 현상, 음절, 인용절, 통사적 구성, 파생 동사, 파생 명사, 파생 부사, 파생 형용사, 파생접미사, 피동 접미사'는 6차 교과서에만 제시된 용어들이다. 전체 174개 중 6차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용어는 37개였다. 6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출현한 문법 용어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4차와 5차에 비해 5회 이상 출현 용어의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 6차 고빈도어 분석

| 6차 순위 | 용어 | 6차 빈도 | 전체 빈도 | 전체 순위 |
|---|---|---|---|---|
| 1 | 단어 | 43 | 269 | 1 |
| 2 | 문장 | 28 | 195 | 2 |
| 3 | 조사 | 20 | 116 | 5 |
| 4 | 용언 | 19 | 77 | 12 |

| | | | | |
|---|---|---|---|---|
| 5 | 명사 | 18 | 177 | 3 |
| 6 | 동사 | 15 | 127 | 4 |
| 7 | 어간 | 14 | 72 | 13 |
| 7 | 체언 | 14 | 69 | 14 |
| 9 | 형태소 | 12 | 53 | 18 |
| 10 | 어미 | 11 | 100 | 7 |
| 10 | 대명사 | 11 | 51 | 19 |
| 10 | 수사 | 11 | 43 | 23 |
| 13 | 형용사 | 10 | 99 | 9 |
| 13 | 어근 | 10 | 98 | 10 |
| 13 | 활용 | 10 | 67 | 15 |
| 16 | 의미 | 9 | 100 | 7 |
| 17 | 부사 | 8 | 78 | 11 |
| 17 | 합성어 | 8 | 46 | 20 |
| 17 | 형태 | 8 | 39 | 24 |
| 17 | 불규칙용언 | 8 | 29 | 32 |
| 17 | 파생어 | 8 | 23 | 41 |
| 22 | 품사 | 6 | 65 | 16 |
| 22 | 주어 | 6 | 44 | 22 |
| 22 | 어절 | 6 | 38 | 25 |
| 22 | 목적어 | 6 | 25 | 36 |
| 26 | 접사 | 5 | 110 | 6 |
| 26 | 격조사 | 5 | 24 | 39 |
| 26 | 문법 | 5 | 19 | 48 |

4) 7차 교과서의 단어 관련 용어 빈도 분석

전체 174개의 문법 용어 중 7차 교과서에는 121개가 등장하였다. 많이 나온 문법 용어는 '단어(88회)'가 다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문장(33회)', '명사(33회)' 순이었다. 7차에만 나온 용어는 '파생 접사, 굴절 접사, 부사형 어미, 부정칭, 재귀칭, 독립어, 재귀 대명사, 구어, 명사구, 부름말, 사이시옷, 어법'이었다. 전체 174개 중 7차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용어는 53개였다. 7차 교과서에서 5회 이상 출현한 문법 용어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7차 고빈도어 분석

| 7차 순위 | 용어 | 7차 빈도 | 전체 빈도 | 전체 순위 |
|---|---|---|---|---|
| 1 | 단어 | 88 | 269 | 1 |
| 2 | 문장 | 33 | 195 | 2 |
| 3 | 명사 | 33 | 177 | 3 |
| 4 | 어근 | 26 | 98 | 10 |
| 5 | 품사 | 25 | 65 | 16 |
| 6 | 용언 | 22 | 77 | 12 |
| 7 | 의미 | 21 | 100 | 7 |
| 7 | 형태소 | 21 | 53 | 18 |
| 9 | 조사 | 20 | 116 | 5 |
| 10 | 어미 | 16 | 100 | 7 |
| 10 | 체언 | 16 | 69 | 14 |
| 12 | 동사 | 14 | 127 | 4 |
| 12 | 형용사 | 14 | 99 | 9 |
| 12 | 부사 | 14 | 78 | 11 |
| 15 | 합성어 | 13 | 46 | 20 |
| 16 | 접미사 | 11 | 36 | 27 |
| 16 | 파생접사 | 11 | 11 | 66 |
| 18 | 대명사 | 10 | 51 | 19 |
| 18 | 주어 | 10 | 44 | 22 |
| 18 | 수사 | 10 | 43 | 23 |
| 18 | 접두사 | 10 | 33 | 28 |
| 22 | 어간 | 9 | 72 | 13 |

| | | | | |
|---|---|---|---|---|
| 22 | 활용 | 9 | 67 | 15 |
| 22 | 보조사 | 9 | 23 | 41 |
| 22 | 파생어 | 9 | 23 | 41 |
| 22 | 보통명사 | 9 | 20 | 47 |
| 27 | 형태 | 8 | 39 | 24 |
| 28 | 어말어미 | 7 | 37 | 26 |
| 28 | 선어말어미 | 7 | 25 | 36 |
| 28 | 인칭대명사 | 7 | 13 | 57 |
| 31 | 관형사 | 6 | 56 | 17 |
| 31 | 감탄사 | 6 | 30 | 31 |
| 31 | 고유명사 | 6 | 17 | 50 |
| 31 | 수관형사 | 6 | 13 | 57 |
| 31 | 복합어 | 6 | 11 | 66 |
| 36 | 접사 | 5 | 110 | 6 |
| 36 | 격조사 | 5 | 24 | 39 |
| 36 | 보조용언 | 5 | 21 | 45 |
| 36 | 접속조사 | 5 | 14 | 55 |
| 36 | 종결어미 | 5 | 13 | 57 |
| 36 | 수식언 | 5 | 9 | 71 |

## Ⅳ. 논의 및 결론

앞서 검토한 계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문법 교육 이론의 설계와 실행에서 유념해서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빈도를 보이는 핵심 용어군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용어군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문법 내용 기술의 관점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군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 1. 고빈도를 보이는 핵심 용어군의 존재

계량 결과 다른 용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용어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최빈도를 보이는 '단어(269회)'를 포함하여, '문장', '명사', '동사', '조사', '접사', '어미', '의미'(이상 빈도 100이상), '형용사', '어근', '부사', '용언', '어간', '체언', '활용', '품사', '관형사', '형태소', '대명사'(이상 빈도 50이상 100미만) 등이 이에 속한다. 언급한 용어군들은 어휘 계량 작업의 기본적 전제상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용어군이라는 점만으로도 주목을 요한다. 단어 단원 문법 교과서 말뭉치의 대표적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적이기 때문에 단어 단원을 배우는 학습자가 어떤 용어보다도 잘 알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단 문법 교육의 실제 국면에서 단어 단원을 가르칠 때 꼭 고려해야 할 용어로 상정할 수 있다. 물론 교육 장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이것들이 단순히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론적 핵심 개념을 담은 용어에 해당하는 것('명사', '동사', '조사', '품사', '관형사', '형태소', '접사' 등)과,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술어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문장', '의미' 등)이 함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그 안에서 다시 의미의 상하 관계에 따라 교육적 중요도나 의미가 갈릴 수 있다(예: '품사'와 '관형사', '용언'과 '형용사', '활용' 등). 이러한 세부적 의미 부여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 2. 시간적 추이에 따른 용어의 변화 양상

계량 결과를 검토하면 4차에서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단어 관련 용어

가 차수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 어느 정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변화 양상은 논리적으로 [존재→소멸], [존재→대체], [비존재→신생]으로 구분할 수 있을 터인데, 단어 부문의 경우 [존재→대체]의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양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존재 → 소멸] 용어군

존재했다가 소멸하는 변화 양상을 보이는 용어군은 대개 4, 5차에 출현하고 6차부터 소멸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받침>, <합성법>, <파생법>, <원형>, <합성 어근>, <발화>, <제1인칭>, <첩어성>, <표기법>, <높임말>, <문법 요소>, <부정어>, <사동사> 등

이러한 결과는 4차와 5차 문법 교과서가 내용상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빚어진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런 용어들의 존재는 역으로 4, 5차 시기의 문법 기술과 6차의 문법 기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한편, 4, 5, 6차에 공히 출현하지만 7차에 들어 소멸한 용어들도 존재한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1)]

<끝소리>, <피동>, <불완전 동사>, <모음>, <거라 불규칙 용언>, <너라 불규칙 용언>, <러 불규칙 용언>, <르 불규칙 용언>, <여 불규칙 용언>,

1) 제시한 목록 중에서 불규칙 용언 관련 용어들은 실상 6차에서도 심화 학습 활동에서만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4, 5차에 제시된 값어치와 같다고 할 수 없다.

<ㅅ 불규칙 용언>, <ㄷ 불규칙 용언>, <ㅂ 불규칙 용언>, <ㅎ 불규칙 용언>

2) [비존재 → 신생] 용어군

4차에서 7차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가 새로 쓰이게 된 용어의 대부분은 6차 신생어들이다. [비존재 → 신생] 용어군은 6차에 이르러서 매우 뚜렷한 변화 양상의 하나로 잡히기 시작한다. 그 목록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부류 1. (6, 7차 존재)
<자동사>, <타동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호격 조사>, <의문문>, <감탄형 어미>, <명령형 어미>, <의문형 어미>, <청유형 어미>, <평서형 어미> 등.

부류 2. (6차에서만 존재)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파생 접미사>, <어휘>, <음운 변동>, <음절>, <인용절>, <통사적 구성>, <파생 동사>, <파생 명사>, <파생 부사>, <파생 형용사>, <피동접미사>, <합성 동사>, <합성 명사> 등.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차에서는 앞선 시기의 문법 용어들이 소멸한 동시에 새로운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류 1은 6차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7차에까지 지속적으로 쓰인 용어들을 모은 것이다. 대부분 조사나 어미의 하위 용어들인데, 이러한 용어가 새로 등장했다고 해서, 이 용어가 담고 있는 개념이 4차와 5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전 시기에는 '명령형', '청유형' 등등으로 서술되면서 <먹어라>, <먹자> 등의 예와 함께 제시되었고, 6차에 이르러서부터는 좀 더 형태 분석적으로 '어미'를 분별하는 예와 함께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등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법 기술의 초점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 3. 기술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는 용어군의 존재

### 1) '용언 활용' 관련 용어군

4차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단어' 단원 기술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부 용어군이 발견된다. 먼저, '용언 활용' 관련 용어군을 지적할 수 있다. 'ㅅ 불규칙 용언, ㄷ 불규칙 용언, ㅂ 불규칙 용언, 거라 불규칙 용언' 등의 용언 활용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용어들은 4, 5차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다가, 6차에서는 본문이 아닌 '심화활동'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7차에 이르러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불규칙 활용의 하위 유형을 지시하는 각 용어들의 빈도가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으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의 불규칙 활용 유형 모두가 유형별로 예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4, 5차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차에서 간단하게 불규칙 유형에 대한 언급 정도에 그치던 것이 7차에 이르러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용어 활용' 기술에 관한 관점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은 6차, 특히 7차에 이르러 '굴절론' 관련 기술 내용의 소략화가 이루어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5차에서 '조사의 결합'과 '어미의 활용'이라는 '굴절론'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과 달리, 6, 7차에서는 이들 내용이 간략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략화의 결과로 7차에 이르러서는 '활용의 불규칙성과 유형'을 기술하는 데

까지 나아가지 않고, '용언의 활용 현상'만을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굴절론' 기술 내용의 이 같은 소략화 현상은, 앞선 연구에서(남가영 외, 2007:195-198) '문법 교육 내용의 적정화' 또는 '음운'이나 '문장' 단원에서 굴절 양상의 일부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 바 있다.

2) '접사' 관련 용어군

4, 5차와 6, 7차에서 용어의 출현 빈도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접사' 관련 용어군을 지목할 수 있다. 먼저, '접사'라는 용어 자체의 출현 빈도가 4차(48회), 5차(52회)에서와 달리, 6차(5회), 7차(5회)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단, 6차에서의 이 같은 감소 현상은 전반적인 문법 교육 내용 자체의 축소 양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접사'의 하위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파생접미사'의 출현이 있기는 하지만, 출현 빈도가 3회에 그치고 있어 문법 교육 전체 내용의 축소에 따른 경향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6차에서와 달리, 7차에서는 '접사' 용어의 감소와 더불어 '파생접사(11회)' 및 '굴절접사(2회)'의 출현이 주목된다. 우선, '파생접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굴절접사'가 출현하고 있다.[2] 이 때문에, 7차에서의 '접사'용어 출현 감소는 6차와는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우선, '단어의 형성' 기술에 있어서, 7차는 4, 5차와는 물론, 6차와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 문법 틀 안

2) '치솟다'라는 단어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치-'를 '파생접사', '솟-'을 '어근', '-다'를 '굴절접사'로 분석·기술하고 있다(『(고등학교) 문법』, p.83). 이 지점에서 '-다'라는 동일한 형태소를 지칭하는 문법 용어로 '어미' 외에 '굴절접사'가 처음으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다뤄왔던 '단어의 개념/단어의 갈래/단어의 형성' 기술에 있어서, 7차는 기존과 달리 '단어의 형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3] 이때, '단어의 형성'이라는 '조어론'기술 방식에 있어서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의 기술 관점의 변화가 확인된다(남가영 외 2007:200-203). 예컨대, 4, 5차의 경우 '접두사'나 '접미사'가 관여하는 단어 파생의 '과정'을 중시했다면, 7차의 경우는 '결과'로서의 '파생어'를 '파생접사'인 '접두사에 의한 것'과 '접미사에 의한 것'으로 나눠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접사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되는 단어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기보다, 단어 형성의 결과물을 유목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7차의 이 같은 기술 방식에서 '파생어'의 하위개념인 '파생접사'의 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상 방식의 차이에 따른 용어 선택은 교과서 기술의 효율성 차원보다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작용될 지식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가영 외 2007:202)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단어 형성'에 대한 지식이 단어 형성의 과정을 알고, 그러한 방법에 입각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는 과정적이고 생성적인 앎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의 용어 표상화 및 내용 기술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단어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접사'의 하위개념 용어로서 '파생접사'도 능동적인 단어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정 중심 접근 방식으로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단어 부문의 문법 교육 용어를 계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차부터 7차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적 의미화를 위해 핵심적인 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들

3) 교육 내용의 선정과 위계화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기술 순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가영 외(2007:188-190)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은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문법이라는 교과 특유의 지식의 구조를 드러내는 고도의 개념어이면서 교사와 학습자의 문법적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용어 자체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며, 더 나아가 문법 용어를 통해 밝히고 개선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의 문제와 현상들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문법 교재의 개발, 문법 교사의 수업 담화 시 고려해야 할 어휘 목록의 마련, 학습자에게 필수적 학습 내용으로 제시해야 할 내용 목록의 마련 등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문법 용어를 다루는 일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실제적 적용을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이미 연구된 음운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후행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문법 교육 연구와 실행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어휘 계량으로 도출한 결과를 양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정보까지 읽어 내고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로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1985),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1991),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본 논문은 2008. 4. 30. 투고되었으며, 2008. 6. 2. 심사가 시작되어 2008. 6. 9. 심사가 완료되었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논저>

고영근 · 남기심(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영근(2004),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현행 고등학교 『문법』을 검토하면서」, 『우리말연구』15, 23-50, 우리말학회.

김광해 외(2001),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김은성 · 남가영 · 김호정 · 박재현(2007), 「국어 문법 학습자의 음운에 대한 앎의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42, 1-25, 언어과학회.

김호정 · 박재현 · 김은성 · 남가영(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Ⅰ): 음운」, 『국어교육학연구』28, 275-300, 국어교육학회.

남가영 · 김호정 · 박재현 · 김은성(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의 구조 체계화 연구(Ⅱ): 형태」, 『우리말연구』21, 177-210, 우리말학회.

박재현 · 김은성 · 남가영 · 김호정(2007),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Ⅰ): 음운」, 『새국어교육』76, 175-196, 한국국어교육학회.

송현정(2006), 「국어과 교육 내용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121, 25-55, 한국어교육학회.

신승용(2006), 「문법 교과서 어휘 대단원의 비판적 검토」, 『어문학』93, 37-55, 한국어문학회.

이선웅(2006),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검토-'단어'와 '문장'단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4(3), 447-4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익섭 · 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이정택(2005), 「현행 고교 문법 교과서 단어 단원의 문제 분석」, 『인문논총』13, 5-14,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최경봉(2006),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142, 431-463, 국어국문학회.

최호철(2006),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 분석 연구-체제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33, 117-154, 한국어학회.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국문초록

##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II): 단어

박재현 · 김은성 · 김호정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 국정 문법 교과서 단어 단원의 문법 용어를 계량하여 그 출현 양상과 추이를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차부터 7차까지 문법 교과서를 말뭉치 형태로 가공하여 문법 교육 용어를 계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4차에서 7차를 아우른 전체 계량 결과를 검토한 후, 각 차수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맥락에서 2차적 논의 사항들을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핵심 용어군이 존재함을 밝히고, 그 목록을 정리하여 단어 부문 교육의 설계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시간적 추이에 따라 용어가 변화하는 양상을 '신생'과 '소멸' 현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셋째, '접사'와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용어군을 통해 문법 기술의 관점의 변화가 용어에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문법 교육 용어의 선택에 개재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국어교육, 문법 교육, 계량 연구, 문법 교육 용어, 단어, 형태소, 품사

■ Abstract

# A quantitative study on the grammar teaching terms(II): morphology-domain

Park, Jae-hyun · Kim, Eun-sung · Kim, H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requency and trends of grammatical terms in 'Dan-eo' chapter with all the government issuing grammar text books. In order to operationalize the grammatical terms, this study transferred the grammar textbooks from 4th to 7th national curriculum into corpus data and analyzed the frequency of grammar teaching terms.

Through the analysis, we can prove that the most frequent term is 'Dan-eo (word, frequency of 269)'. And the following frequency is identified as 'Mun-jang (sentence, 195)', 'Myeong-sa(Noun, 177), 'Dong-sa (verb, 127)', 'Jo-sa (particle, 116).

This study discusses these major findings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First, the existence of the Higher-frequency grammar teaching terms. Second, The change of grammar teaching terms with the transition from 4th to 7th. Third, The existence of grammar teaching terms reflecting the change of grammar descrip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quantitative study, grammar teaching terms, word, morphology, a part of speech